



# 코이 연못의 소금 – 무엇을 해 주고, 무엇을 해 주지 않는가

h2koi.com · 2026-08-04

## 이 글의 요점

- 가장 근거가 분명한 용도는 **아질산염 방어**입니다. 염화물 이온이 아가미의 흡수 경로에서 아질산염과 경쟁해, 여과가 회복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줍니다.
- 상용역은 **0.1~0.3%(1톤당 1~3 kg)**, 치료역은 **0.5%까지**를 기간을 정해 짧게 쓰는 것이 널리 쓰이는 관행입니다. 처방이 아닙니다.
-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소모되지도 않습니다.** 배수를 동반한 환수로만 빠집니다. 눈대중으로 더하면 생각한 농도를 한참 넘깁니다.
- 연못 부피 추정치 아니라 **측정된 염분값**에 맞춰 투여하십시오. 천일염과 굵은소금은 무게당 실제 염화나트륨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.
- 소금은 산소를 늘려 주지 않고, 암모니아를 처리하지 않으며, KH를 올려 주지도 않습니다.

| 염분       | 1톤당 소금  | 무엇을 위한 농도인가             | 기간의 감각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0.1%     | 1 kg    | 매우 낮은 상용역               | 장기간이어도 부담이 작음        |
| 0.1~0.3% | 1~3 kg  | 일반적인 상용·보조. 아질산염 방어의 중심 | 이상이 가라앉을 때까지, 며칠~몇 주 |
| 0.3~0.5% | 3~5 kg  | 짧게 쓰는 치료역               | 지도를 받고 기간을 끊어서       |
| 0.5% 초과  | 5 kg 초과 | 권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| 농도 자체가 부담이 됨         |

**소금은 아질산염을 없애지 않습니다.** 코이가 건디는 시간을 늘려 줄 뿐입니다. 동시에 급이를 줄이고, 환수(물갈이)로 아질산염 자체를 희석하며, 여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소금을 넣고 안심한 채 사료를 그대로 주는 것이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.